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 도 자 료

보도

2016. 9. 29(목) 조간부터

배포

2016. 9. 28(수)

책임자

동향분석실
조용운 연구위원(3775-9018)

작성자

조용운 연구위원(3775-9018)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총 4매

제목 : 2016년 개인별 보험 가입률 93.8%

-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보험소비자 수요와 보험산업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발간함.*
- 동 보고서는 보험소비자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에 대하여 조사함.
- 또한,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 현안인 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 인터넷 보험 가입 채널 이용실태, 연금 보험, 자영업자 노후준비 실태, 화재 도난 대비 상품 등에 대한 조사도 포함함.
- * 본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3\%$ 임.

10명 중 9명 이상 보험 상품 보유

- 전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6.3%로 대부분 가구에서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경우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81.8%였으며, 손해보험의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88.9%를 기록함.
- 전체 개인별 보험 가입률의 경우 93.8%로, 10명 중 9명 이상이 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별 보험 가입률이 73.4%를 기록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개인별 보험 가입률이 76.2%로 나타남.

가구 및 개인 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가구	생명보험	87.3	86.3	83.0	85.8	87.2	81.8
	손해보험	91.4	87.2	86.8	87.7	91.8	88.9
	전체	98.0	96.1	96.1	97.5	99.7	96.3
개인	생명보험	78.0	79.3	77.3	79.3	78.9	73.4
	손해보험	71.5	67.9	74.6	74.3	79.7	76.2
	전체	92.5	92.9	94.0	93.8	96.7	93.8

* 손해보험 가입률에는 자동차보험이 포함됨.

실손의료보험 소외계층 정책적 배려 필요

- 지난 1년 동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68.3%**로 나타나 실손의료보험은 **범국민적 보험**으로 자리매김함.
 - 가입자의 8.4% 정도만 해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됨.
- 실손의료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29.5%)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함.
 -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은 고연령 계층(50대 50.8%, 60대 62.8%), 블루칼라(58.2%)와 주부(52.4%), 중졸 이하(68.4%), 저소득층(61.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현재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 5명 중 2명 정도(40.3%)가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신뢰성을 가장 우려

- 인터넷 보험가격 비교 사이트와 인터넷 전업 보험회사 등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2%**에 불과함.
 - 또한, '향후 인터넷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겠다(17.9%)'는 응답 비율도 '가입하지 않겠다(82.1%)'는 응답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함.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 경험



- 특히, '인터넷에서 보험료나 상품 정보를 검색해 본 경험이 없다(80.4%)'는 응답이 많아, 잠재 고객 단계에서부터 인터넷 검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 보험 정보 검색 시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유형에 대해서는 '검색포털 사이트'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27.7%)', '보험 관련 커뮤니티(6.4%)' 등의 순임.
- 보험 가입 시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성이 걱정되기 때문에 (21.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소비자들은 인터넷 상의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른 이유로는 '설계사와의 대면 면접이 익숙하기 때문에'가 21.6%, '인터넷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가 14.1%를 차지함.
-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상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고객 편의를 고려한 손쉬운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관심 확대 필요

- 고령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건강생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 가운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7%를 차지하였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체감(60.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생활서비스의 필요성은 커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81.9%로 매우 높게 나타나, 건강생활서비스의 실질적인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앞으로 생활습관개선 서비스에 참여할 의사를 조사한 결과, '참여하지 않겠다(40.1%)'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아, 향후 생활습관개선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만약 생활습관개선 서비스에 참여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신체활동 관련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음.
- 그 이외에 ‘비만관리 서비스’는 24.6%, ‘스트레스관리 서비스’는 18.5%를 차지함.

향후 경제적 우려로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 가입 주저

- 향후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개인연금이 제공되어도 경제적인 우려로 인해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만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을 제공한다면 가입하겠는가를 질문한 결과, ‘가입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64.6%로 높게 나타남.
 - ‘가입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이유로는 ‘향후 이러한 상품에 가입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음.
- 또한, 자영업자도 근로자처럼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법 개정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자영업자도 근로자처럼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15.2%에 불과함.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과제로는 ‘세제 혜택 및 저렴한 운용수수료(44.3%)’를 가장 많이 꼽았음.

첨부 :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설명자료』 . 끝.